

(주)아루카, 해양미세조류 대량배양 스마트팜 문 열어

완도 신지면에 최첨단 시설 개조 식품 등 해양자원 혁신적 활용 지역 연관 기업과 기술 제휴도 농어촌 6차 산업과 모델 기반

(주)아루카가 지난 20일 완도군 신지면에 차세대 먹거리이자 고부가가치산업인 해양미세조류 대량배양 스마트팜 시설 문을 열고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본격화한다.

개소식에는 신우철 완도군수와 아루카 그룹 이동한 회장, 김양훈 완도군 의회의장, 장보고 글로벌재단 김덕룡 이사장, 조선대학교 김춘성 총장, 정중수 재난안전학회 회장 겸 한국영사외교학회 회장, 조선대학교 김용재 산협력단장, 김성수 신지면장, 최철희 고문(조선대의과대학 명예교수, 의학박사), 김시욱 고문(조선대 공과대학 명예교수, 공학박사, 해양미세조류특허), 허공희 완도군의회 전의장, 완도수산고등학교 황우선 교장 등 100여명



(주)아루카가 지난 20일 완도군 신지면 일원에 해양 미세조류 대량배양 스마트팜 시설 문을 열었다. 완도군 제공

이 참석했다. (주)아루카의 스마트팜은 최첨단 연중무휴 해양미세조류 대량배양 시스템을 통해 천연클로로필A와 CGF와 같은 고부가가치 소재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식품, 의약품,

친환경 산업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해양자원의 혁신적 활용이 기대된다. (주)아루카는 농어촌 6차 산업화 모델을 기반으로 미세조류 스마트팜에서 시작해 치유식품 제조센터와 대체의료치유센터로 확장해 나가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

다. 이번 개소식은 이러한 비전을 알리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새로운 미래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선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스마트팜 투어와 함께 해양미세조류가 지닌 혁신적 가치를 알리는 기술 및 제품 소개됐고 육상 김양식과 육상 바다고리풀 배양도 함께 선보이며 지역 연관 기업과의 기술 제휴를 선보였다.

김덕룡 장보고 글로벌재단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완도는 해양생물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으며 (주)아루카의 스마트팜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생명을 살리는 기술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한 (주)아루카 대표는 "이번 스마트팜 개소를 시작으로 해양미세조류 산업을 통해 건강과 생명을 살리는 기업이 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완도=정태영 기자



생태공원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강진군, 나무은행 활용 예산 절감

강진군이 산림청 공모사업비 10억원으로 강진읍 남포마을 일원 1ha에 동백나무 외 16종 3만5673본의 수목을 심어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23일 강진군에 따르면 기후대응 도시숲은 미세먼지 차단, 폭염완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휴식과 치유를 제공하여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숲이다.

강진만 생태공원과 지방정원을 연계해 조성된 기후대응 도시숲은 마을로 유입되는 미세먼지와 강한 바람을 차폐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마을 앞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으로 남포마을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사업은 해송, 동백, 비자나무 등 미세먼지 흡수에 효과적인 수목을 심어 탄소흡수원 확충에 중점을 뒀다. 블루로우, 직립광쟁이, 황금개나리, 자엽자두나무 등 특색있는 수목을 포인트로 심어 볼거리를 제공했다.

대구면 나무은행의 중국단풍 101주, 소사나무 69주를 활용해 약 3500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나무은행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베어지는 나무 중 경제적 가치가 있는 나무를 기증받아 관리해 향후 공공사업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강진군은 나무은행을 적극 활용,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질 높은 수목을 확보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였다.

임창복 해양산림과장은 "탄소중립과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도시숲 조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운복 기자

수도요금 감면 확대 조례 개정 해남군, 다자녀 가정 대상 등

해남군은 독립유공자 및 장애인 세대 등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지난 16일 수도요금 조례를 개정하고,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독립유공자 세대와 장애인 가구, 18세 미만 2명 다자녀가구에 대해 최대 6900원을 감면한다.

또한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최대 1만3800원을 감면한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기존에 요금 감면을 받지 못했던 독립유공자, 장애인 가구에 대한 요금 감면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해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

해남군 관계자는 "이번 수도요금 감면 정책을 통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이겨내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맞춤형 상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원광전력(주), 현액증서 수여받아 2024 고향사랑 명예의 전당

원광전력(주)은 지난 19일 해남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 고향사랑 명예의 전당 현액식 행사에서 실버등급 현액증서를 수여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현액증서는 올 한 해 동안 해남군에 장학사업기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한 고액 기부자 37명을 대상으로 수여됐으며, 특히 실버등급은 가장 높은 금액을 기부한 기업에 주어지는 영예로운 증서이다.

해남군 고향사랑 명예의 전당은 지난해 3월 해남군청 2층 역사관에 전국 최초로 조성됐다. 현액 대상은 해남군 고향사랑기금 및 장학사업기금 누적 기탁액 500만 원 이상을 기탁한 개인 및 단체이다. 군은 기탁금액별 5개 등급(실버등급, 브론즈등급, 프레스티지등급 등)으로 구분해 기부자의 이름 또는 상호를 명패에 새겨 현액증서를 수여했다.

이번 실버등급을 수여받은 원광전력(주)은 1988년 설립 이래 한국전력공사의 협력사로서 송배전 공사, 전기공사 등 유지보수 사업을 꾸준히 이어온 기업이다. 특히 해남군에서 다양한 에너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했으며, 현재 한국전력공사와 협력해 국내 13개 도지역에서 디젤발전 연계형 신재생에너지 및 ESS 구축 사업을 수행하며 ESS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전연수 원광전력(주)대표이사는 "해남군 지역기업으로서 지역에서 얻은 수익을 주민과 나누기 위해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동백장학회를 비롯해 해남군 장학사업 및 전기공사협회 전남도회 장학회 등에 매년 약정 기부를 지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목포시 동명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관내 차상위 계층에게 27만원씩 총 135만원(5드림) 상당의 난방유 교환권을 전달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목포시동명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난방유 지원

목포시동명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우성철)가 지난 20일 2024년 난방유 지원 특화사업을 추진했다.

23일 목포시 동명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절기 난방비 부담이 큰 차상위 계층 5세대를 선정해 27

만원씩 총 5드림(135만원)의 난방유 교환권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동명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지난 2023년부터 이 특화사업을 진행해 2년째를 맞고 있다.

우성철 위원장은 "겨울철 난방 부담이

큰 저소득층 가구에 도움을 주고자 특화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진만 동명동장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해준 동명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완도 청산도, '한국 관광의 별' 선정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 평가

완도군 청산도가 '2024 한국 관광의 별'로 선정됐다.

23일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 18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개최된 한국관광공사 주관 '2024 한국 관광의 별' 시상식에서 청산도가 올해 한국 관광을 빛낸 친환경 관광 콘텐츠 분야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한국 관광의 별'은 2010년부터 매년 한국 관광 발전에 이바지한 관광자원, 지방자치단체와 단체, 개인 등을 발굴해 수여하는 관광 분야 최고 권위 있는 상으로 올해는 3개 부문, 9개 분야에 대해 시상했다.

산과 바다, 하늘이 모두 푸르른 청산도에는 세계중요농업유산인 구들장 논과, 눈에는 살아 있는 화석이자 환경지표종인 긴꼬리 투구 새우가 서식하고 있다.

청산도는 빛 공해가 적어 2월부터 11월까지 아름다운 은하수를 감상할 수 있고 6월에는 청정한 자연에서만 사는 반딧불이도 관찰할 수 있다.

지난 2007년에는 생태 환경과 해녀, 돌담, 구들장 논 등 고유한 전통문화를 잘 지켜나가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됐으며 2011년에는 11개 코스의 슬로길에 국제슬로시티연맹으로부터 '세계 슬로길 1호'로 인정받았다.

청산도는 봄이면 만개한 유채꽃과 청보리의 푸른 물결이 한 폭의 그림이 돼 슬로길을 걸으면 아름다운 풍경에 흠뻑 빠져 절로 발걸음이 느려져 삶의 여유가 되는 섬이다.

청산도에서는 해마다 슬로걷기 축제가 열린다.

축제 기간에는 주민 주도형 관광 상품 운영, 플로깅 캠페인 등 다양한 친환경 프로그램 운영하며 청산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데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한국 관광의 별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환경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며 "청산도의 가치를 지키는 일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완도=정태영 기자